

明代の 運氣學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Five Circuits and Six Qi Learning of Ming Dynasty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Following the Jin Yuan Dynasty, the Ming and Song Dynasties witnessed a great development of Yunqi xue. A study into this development has a vast significance in studying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ethods: The contents relating to Yunqi within the Comprehensive Medical Books, published during the Ming period, and medical texts separately published specifically dealing with Yunqi were used in order to review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study of Yunqi during this period.

Results: There were many cases in the comprehensive medical books during the Ming period that dealt with Yunqi. Some of the examples are: Yunqilu in Yixueliuyao, YunQiZongLun in Yixuerumen, and Yunqilu in Yixueliuyao. A number of books that followed sui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study were published, the examples of which are Wangji's Yunqiyilan, and ZhangJiebin's LeiJingtuyi. Wangji, in his book, opposed the mechanic utilization of YunQi theory, and advocated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theory at the doctor's discretion. Liwei, in his YunQiZongLun, wrote a great deal of knowledge which he gained based on the previous-generation medical masters' achievements.

Conclusions: Yunqi became widely accepted during the Ming period which led to some doctors advocating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YunQi theory, and some doctors even completely denouncing Yunqi.

Key Words: YunQiZongLun(運氣總論), YunQiLue(運氣略), YunQiYiLan(運氣易覽), LeiJingTuYiYunQi(類經圖翼運氣), YunQiShang(運氣商)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y@dju.ac.kr

Received(April 23, 2018), Revised(May 5, 2018), Accepted(May 8,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元나라 말기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농민기의군의 領首 朱元璋은 1368년 南京에서 皇帝라고 칭하고 명나라를 건국하였다. 이후 成祖 永樂帝는 ‘靖難之役’을 통해 帝位를 탈취하였고 1421년 北京으로 천도하였다. 1644년 李自成이 이끄는 반란군은 北京을 함락하여 명나라는 멸망하였고 바로 이어서 吳三桂의 인도로 北京에 入城한 만주족 淸이 중국을 통일하여 중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明太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 朱子學을 重視하여 주자학이 크게 유행하였고 명나라 중기에 王守仁은 心學인 양명학을 창시하여 이후 학술계에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醫學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명대 의학의 중요 특징은 이론과 임상 의방면에서 모두 큰 발전이 있었고 자신의 임상경험과 前人들의 의학적 성취를 집대성하여 각분야를 망라한 종합의서를 편찬한 것이다. 이들 의서 속에는 運氣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普濟方』 『醫學入門』 속의 「運氣總論」, 『醫學六要』 속의 「運氣略」 등이다. 또한 運氣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한 汪機의 『運氣易覽』, 『類經圖翼』 속의 「運氣上下」 등이 간행되어 運氣이론이 집대성되었고 運氣의학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많은 運氣전문서들이 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運氣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등도 나오게 되었는데 繆希雍은 오운육기학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고 일부의가들은 運氣학설을 기계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목희용의 주장에 대해서 民國時代의 의가 謝觀은 “陰陽五行은 政治와 敎化의 魂神으로써 한의학에서 一切를 포괄하는 하나의 중요 學說이 五運六氣임으로 이를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論者는 명대에 간행된 중요운기서적 중에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몇 권의 서적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가의 주장, 否定派의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그리고 명대에 간행된 運氣서적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명대의 대표적인 운기서적

1. 汪機의 運氣易覽

『運氣易覽』은 명나라 때 祁門의 汪機가 지은 책이다. 이 책은 運氣학설에 대해서 全面的인 정리와 연구를 하였는데 설명과 그림이 풍부하고 이론과 歌訣이 함께 실려 있으며 내용도 적지가 않다. 이 책은 運氣이론을 넓히는 방면에서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運氣학설의 발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임상응용을 중시하여 「五運主病治例」 「六氣主病治例」 등을 補入하였다. 이 책은 1528년에 編成되었지만 출판을 미루다가 1533년에 門人 程鏞의 청에 의해 1533년에 인쇄되었다.

이 책의 중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運氣이론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함

그는 臨床의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이론도 깊이 연구하였는데 運氣를 墨守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운기서적은 옛사람은 그 단서를 열었을 뿐이니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의사가 어찌 한갓 그 법칙에만 얽매이고 法外의 남긴 뜻은 추구하지 않는가. 만약 겨울에 때 아닌 따뜻함이 있고 여름에 때 아닌 추위가 있고 봄에 때 아닌 건조함이 있고 가을에 때 아닌 더위가 있다고 하면 이는 四時不正之氣이니 또한 사람을 병들게 한다…… 또 하물며 백리 안에서 개이고 비움이 不同하고 천리 떨어진 나라에 춥고 따뜻함이 각각 다르니 이는 지방풍토의 기후가 각각 달라 생기는 병이 토착적인 것을 많이 따르니 어찌 모두 運氣에만 관련된 것이겠는가. 반드시 기틀에 따라 변화하기를 힘써 때로 인해 마땅함을 알면 고인들이 계발하지 못한 뜻을 터득하고 말하지 아니한 오묘한 뜻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運氣一書는 古人이 啟其端倪而已니 員機之士가 其可徒泥其法而不求其法外之遺耶아 如曰 冬有非時之濇하고 夏有非時之寒하고 春有非時之燥하고 秋有非時之熱이

면 此四時不正之氣니 亦能病患也라 …… 又況百里之內에 晴雨不同하고 千里之邦에 寒暖各異하니 此方土之候 各有不齊하야 所生之病이 多隨土著하니 烏可皆以運氣相比例哉아 務須隨機達變하야 因時識宜하면 庶得古人未發之旨하고 而能盡其不言之妙也리라¹⁾

위의 내용은 四時不正之氣는 運氣와 관련이 없고 지역마다 기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運氣를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건대 運氣학은 마땅히 法外之法을 구하고 未發之旨를 터득하여 不言之妙를 다하는 것으로 핵심은 임상실천과 결합하는 것이었다.

그는 「學五運六氣綱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하여 설명하고 있다.

혹자가 물었다. 오운육기는 『내경』에서 강론했으나 모든 방서에서 소략하고 그 이치가 오묘하여 쉽게 나아가 들어가기 어려우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단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의학을 배울 때에 반드시 먼저 병기를 알아 변화를 알고 사람의 형상을 논하여 치료할 것이다. 만약 곧장 運氣를 전공하면 두렵건대 마중소의 부류에 빠져 들어가 모년에 태어난 사람은 모일에 모경이 병드니 모약을 써서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

또 물었다. 사람의 오장육부는 밖으로 천지와 상응하니 運氣와 오운과 팔풍동정의 변화에 사람의 기가 응하는 것이 어찌 적절하지 않으리오.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면 의사로써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조치하리오.

대답한다. 양태수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운육기는 반드시 매일 살펴 바람 불고 비오고 흐리고 맑은 것을 기록할 것이니 때에 응해 병드는 자가 있고 기운이 잠복했다가 뒤에 병드는 자가 있고 옛 병이 상충하여 재발하는 것이 있으니 체득하고 인식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오래 지나게 되면 자연히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或問五運六氣는 『內經』講論이나 諸方所略하고 其理奧妙하야 未

易造入하니 願發明焉하노이다 丹溪朱先生曰: 學醫之初에 宜須先識病機하야 知變化하고 論人形而處治라 若便攻於運氣하면 恐流於馬宗素之徒하야 而云某生人은 某日病於某經이니 用某藥治之之類也라 又問 人之五臟六腑는 外應天地하니 司氣司運과 八風動靜之變에 人氣應焉이 豈不切當이리오 苟不知此면 爲醫未造其理니 何以調之리오 曰: 楊太受嘗曰云云 五運六氣는 須每日候之하야 記其風雨晦明이니 而有應時作病者하며 有伏氣後時而病者하며 有故病衝而動者니 體認純熟하야 久久면 自然造其至極이라²⁾

이를 통해 보면 왕기는 運氣학에 대해서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 하였으며 꾸준히 관찰하여 이를 임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오운육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

그는 「運氣說」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령 太角 壬木의 기화는 啓拆하되 變하면 催拉이 되고 太徵 戊火의 기화는 暄燠하되 變하면 炎烈이 되니 正化가 변해서 된 것이다.

少角 丁未에는 木氣가 부족하니 淸氣가 勝하여 熱氣가 보복하고 少徵 癸火에는 火氣가 부족하니 寒氣가 勝하여 雨氣가 보복하니 邪化가 보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寒氣가 勝해서 陽焰하는 것은 火鬱이 되고 熱氣가 甚해서 淒淸하는 것은 金鬱이 되니 눌러서 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水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冰雹이 되고 土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飄驟가 되니 울체되었던 것이 怒起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風淫이 심하면 太陰을 克하고 熱淫이 勝하면 陽明을 克하는 것은 所勝者를 能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相火의 아래에 수기가 따르고 습토의 아래에 풍기가 따르는 것은 극한 상태가 되면 反克하는 것이

1)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6.

2)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9.

있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推拉之變에 不應하면 온 하늘에 큰 바람이 불 것이요 炎熱之變에 不應하면 온 세상이 다 타오르게 것이요 清氣之勝에 不應하면 온 우주가 明潔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요 雨氣之復에 不應하면 온 산澤이 蒸溽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鬱과 發과 淫과 承은 그 이치가 다 그러하다. 이것은 그 應함에 징후가 없으면 그 이름에 기약이 없으니 그러므로 알 수는 있지만 기필할 수는 없다. 그 응하는데 징후가 없으면 不時에 응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이르는 데 때가 없으면 갑자기 이르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그 변화가 비슷한 것이 있고 백리의 가까운 곳이지만 그 변화가不同的한 것이 또 있다. 그 때에 나아가고 그 곳에 처하여 변화를 따라 관찰을 하면 길흉을 알 수 있다.(假如太角壬木之化는 爲啟拆而變爲推拉이오 太徵戌火之化는 爲直燥而變爲炎烈이니 正化之爲變者然也라 少角丁木에 木氣不足하니 清勝而熱復하고 少徵癸火에 火氣不足하니 寒勝而雨復하니 邪化之爲復者然也라 寒甚而爲陽焰은 是爲火鬱하고 熱甚而爲凄清은 是爲金鬱이니 抑而不伸者然也라 水鬱而發則爲冰雹하고 土鬱而發則爲飄驟하니 鬱而怒起者然也라 風淫所勝則克太陰하고 熱淫所勝則克陽明은 凌其所勝者然也라 相火之下에 水氣承之하고 濕土之下에 風氣承之는 極則有反者然也라 然推拉之變不應하면 普天이 悉皆大風이오 炎烈之變不應하면 薄海悉皆燔灼이오 清氣之勝不應하면 宇宙無不明潔이오 雨氣之復不應하면 山澤無不蒸溽이라 鬱也, 發也, 淫也, 承也는 其理皆然이라 凡此者는 其應非有候면 則有不時而應者矣오 其至非有時면 則有卒然而至者矣라 是故로 千里之遠이나 其變相似者 有之하면 百里之近이나 其變不同者 亦有之라 即其時하고 當其處하야 隨其變而占焉이면 則吉凶을 可知라)³⁾

위의 말은 운기의 이치에 대해서 개괄한 것인데 正化, 邪化, 抑鬱, 鬱發, 淫勝 등에 대해서 번거롭지

3)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39-240.

않으면서도 요점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왕기는 “論六病”에서 운기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논술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按經旨컨대 則淫勝 鬱復, 主客太少가 皆至其疾하니 則邪之中人이 有淺深矣라 又在人稟受衝冒畏避而矣라”⁴⁾ 하였다. 이 말은 비록 『내경』의 운기편에서 淫勝, 鬱復, 태과 불급한 主客氣가 모두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사람이 품부 받은 체질, 외사에 대한 감축, 외사에 대한 대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 “若起居調養 而能避邪安正하면 無橫夭殃矣라”⁵⁾ 하고 또 “雖然 氣運交相臨遇에 相得則和하고 不相得則病이라 或瘟疫時氣에 一州一縣이 無問大小皆病者는 斯固氣運自然이나 若我之眞元氣實하고 起居有時하며 動作無相衝冒하면 縱使瘟疫之作이라도 亦微라 是故로 聖人이 有養生修真之術也라⁶⁾”고 하였다.

여기서 운기를 질병을 불러오는 外界因素로서 보아 운기와 질병의 밀접한 관계는 긍정했지만 唯一한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는 『論六病』의 말미에서 운기를 융통성 있게 활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경』에서 “겨울에 한사에 상하면 봄에 온병이 생기고 봄에 풍사에 상하면 여름에 손설이 생기고 여름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학질이 생기고 가을에 습사에 상하면 겨울에 해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니” 사시의 기운에 손상되면 모두 병이 생긴다. 또 동서 남북 사망의 기운이 부동하여 병이 되는 것이 각각 다르므로 『내경』에서 치료법은 달리 쓰지만 그 방법은 마땅하다(異法方宜)는 것을 논하여 병을 얻은 정황을 두었으니 옳다. 또 혹 당해년에 병이 들었으되 歲氣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또한 반드시 그 감축한 근원을 살펴 증상과 맥이 반드시 운기에 의한 것

4)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8.

5)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8.

6)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8.

이 아니라면 의사가 분명하게 아는 것에 달려 있으니 아마 운기에 구애받는 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經曰 冬傷寒하면 春病癘하고 春傷風하면 夏飧泄하며 夏傷暑하면 秋瘧疾하고 秋傷濕하면 冬咳嗽라하니 傷四時之氣면 皆能爲病이라 又有四方之氣不同하여 爲病各異 故로 經有異法方宜之論하야 以得病之情者是也라 又或當歲有病이로대 而非歲氣者는 亦須原其所感하야 形症脈候가 未必盡爲運所作이면 在工以明之니 庶免拘于氣運也라”)⁷⁾

3) 장기간의 운기의 작용과 규율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그는 「論五天五運之氣」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일설에 개벽 이후로 五氣가 원회운세가 계승됨을 따라 스스로 氣數가 있으니 천지 만물이 능히 피해 갈 수 없다. 근세는 토운에 해당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병이 없어도 담이 많으니 이는 전왕조 때에 熱이 많았던 것과는 不同하다. (전왕조 때는 火運이었다) 예를 들어 세속에서 양매창이라 부르는 것은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다. 土濕은 곰팡이를 생하니 매창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의서의 오운육기와 남북이정을 읽을 때에 어찌 오직 一年一時에만 그쳐 원회운세가 통솔하는 것을 잊어버려서야 되겠는가(一說自開闢以來로 五氣秉承元會運世하야 自有氣數하니 天地萬物所不能逃라 近世當是土運이니 是以로 人無疾而亦痰하니 此與勝國時多熱不同이라 (勝國時火運) 如俗稱楊梅瘡은 自南行北하야 人物雷同이라 土濕生霉하니 當曰霉瘡이라 讀醫書 五運六氣와 南北二政에 豈獨止於一年一時하고 而煩忘世運會元之統耶아)⁸⁾

이러한 주장은 후세의 大司天論의 발단을 이룬다. 元會運世는 30년이 一世가 되고 12世 360년이 一運이 되고, 30運 10800년이 一會가 되고, 12會

129600년이 一元이 된다. 위의 내용은 오운육기의 이론은 1年 1時的 작용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백, 천, 만년의 사이에도 이 이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왕조 원나라 때는 火運이라 사람들이 熱病에 많이 걸렸고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土運이기 때문에 양매창병이 생기고 사람이 병이 없어도 痰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大運氣論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저자의 폭넓은 사고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4) 운기를 임상에 활용한 예

『運氣易覽』에 왕기가 운기의 이론을 운용하여 임상에 활용가 實例가 4개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은 생략한다.

例一: 어떤 사람이 복방을 여행하여 머물렀다. 여름과 가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려 기침을 하고 頭痛이 있어 益元散(활석 6냥, 감초 1냥)을 姜葱湯에 타서 먹으니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하루에 수십 근을 썼다. 이것은 甲巳土運에 濕이 痰으로 하여금 肺의 上竅를 막히게 하여 다만 방광의 下竅만을 泄하였을 따름이니 기침의 예에는 있지 않는 것이다.⁹⁾

例二: 戊年에 초나라 땅에 春溫이 돌아 사람들이 서로 조문도 하지 않았다. 내가 五癘丹을 가지고 샘물에 담갔다가 童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어 매일 수백 명을 일어나게 했다. 五癘丹은 乙庚年에는 황금을 군약으로 하고 丁壬年에는 산치자를 군약으로 하고 丙辛年에는 황백을 군약으로 하고 戊癸年에는 황련을 군약으로 하고 甲己年에는 甘草梢를 군약으로 삼는데 군약은 한배를 더 넣는다. 나머지 4味와 향부자, 자소엽은 신약으로 삼는데 반으로 줄인다. 七味를 생용한다. 가루는 대황을 쓰는데 3배를 넣어 진하게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고아서 고약을 만들어 계란크기로 환약을 만든다. 주사와 옹황을 등분하여 걸을 싸고 금박을 입혀 一丸씩 사용한다. 샘물 7사발을 담가 7인에게 먹일 수 있다.¹⁰⁾

7)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9.

8)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6.

9)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6.

10)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6.

例三: 단계가 말하기를 “소아의 천연두에 陳文中이 목향산 이공산을 썼는데 온열한 약이 많은 것은 처방을 할 때에 운기가 寒水가 司天·在泉하고 또 嚴冬大寒을 만나 陰寒의 氣에 울체되고 막혀서 瘡이 붉게 터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辛熱한 약으로 발산시킨 것이다. 지금 사람은 時令의 한열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서 치료를 하니 사람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¹¹⁾

例四: 한사람이 45세였는데 평생 마르고 약하고 血少하였다. 庚子年 금이 태과한 해를 만나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燥金이 용사하여 오랫동안 맑고 비가 오지 않아 燥症을 얻었다. 피부가 갈라지고 손발이 枯燥하며 금으면 가루가 생기고 피가 나오면서 아프고 저렸으며 10손가락의 손톱이 두꺼워져서 도리어 가려워도 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처방 하나를 지어 生血潤膚飲이라 하였다. 당귀, 황기, 생속지, 천문동, 맥문동, 오미자, 片芩, 과루인, 桃仁泥, 酒紅花, 승마를 써서 달여서 10여첩을 먹이니 그 병이 나왔다. 대변이 結燥하면 마인, 옥리인을 더한다. 뒤에 10여명을 치료했는데 모두 효과가 좋았다.¹²⁾

이상 4개의 病例로부터 歲氣, 歲運을 결합하여 病情을 분석하고 方藥을 가감하여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取한 것이다. 이것은 운기의 실제상황에 따라 병을 치료한 비교적 초기의 醫案기록이라 말할 수 있다.

2. 李梴의 運氣總論

이 내용은 『醫學入門』 內集 卷首下에 실려 있다. 그는 『素問』, 『靈樞』와 『紺珠經』 등서를 인용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과거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바탕 위에서 문장을 서술하여 참고할 가치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 의가들이 『醫學入門』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요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氣學說의 중요성을 강조

그는 먼저 서두에서 張子和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十二經絡을 暗誦하지 않으면 입을 열고 손을 움직임에 곧 어긋나게 될 것이고 五運과 六氣를 통하지 못하면 方書를 모두 검색한들 무엇을 구제하겠는가”라고 하였다. 經과 絡을 밝게 인식하여 標를 얻고 運과 氣를 밝게 인식하여 근본을 얻어야 한다. 標를 얻고 또 根本을 取한다면 일천 사람을 治하여 一損도 없으리라(不誦十二經絡이면 開口動手에 便錯이오 不通五運六氣면 檢書方書나 何濟리오 하니 經絡을 明認해야 得標하고 運氣를 明認해야 得本이라 求得標하고 只取本하면 治千人에 無一損이리라)¹³⁾

이 말은 운기학설이 인체의 생리·병리를 파악하여 치료를 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끝부분에서 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經과 絡과 장부와 맥과 병과 약과 치료는 운기의 所爲가 아닌 것이 없다. 비단 한해만이 아니라 비록 한 時間 한 分秒의 短時라도 五行의 氣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한 물 건만이 아니라 비록 一毫一芒(극히 작은 것)의 細한 데도 五行의 化가 실리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위로 하늘에 있으면 곧 五星의 倍하고 減하는 反應이 있고 아래로 땅에 미루어 보면 곧 五蟲의 耗하고 育하는 證험이 있거늘 어찌하여 俗醫들의 醫之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運氣가 어떠한 사물인지 알지 못하고 醫의 變通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 時日에만 拘泥하고 비방만을 고집하여서 사람을 傷害하고 있다.(由此觀之하면 經絡 臟腑 脈病 藥治는 無非運氣之所爲也니 非祇一歲也라 雖一時一刻之短이라도 而五行之氣 莫不存하며 非特一物也라 雖一毫一芒之

11)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46-247.

12)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7.

13)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p.200-201.

細라도 而五行之化 莫不載하니 上達於天하면 則有五
星倍滅之應하고 下推於地하면 則有五蟲耗育之驗이
어늘 奈何로 俗醫의 不知醫之源者는 全然不識運氣爲何
物하고 不知醫之變者는 又泥時日하며 執鈐方하여 以
害人이라)¹⁴⁾

이천은 경락, 장부, 맥병, 약치 모두가 운기와 직
접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천지간의 모든 변화를 운
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으며 운기를 강조하고 있
다.

儒者의 道는 博文約禮일뿐이고 醫家의 道는 五運
六氣일뿐이니 배우는 자가 이로 말미암아 門에 들어
가서 그 쌓이고 깊은 것을 탐구하지 않겠는가(儒之
道는 博約而已矣요 醫之道는 運氣而已矣니 學者는
可不由此入門하여 而求其蘊奧耶아)¹⁵⁾

2) 占天望氣의 방법을 제시함

무릇 占天함은 마땅히 正月 初一日로 하되 가령
太過한 紀年에는 寅時 初에 보고 不及한 紀年에는
寅時 末에 보고 平治한 紀年에는 寅時 正中에 본다.
만일 蒼氣면 風이라 하고 丹氣면 熱이라 하고 靛氣
면 濕이라 하고 素氣면 燥라 하고 黑氣면 寒이라 하
고 그 氣의 빛깔이 겹쳐 나타난 것이 있으면 또 마
땅히 微甚을 구분하여 추리한다.¹⁶⁾

위의 내용은 정월 초하루 寅時에 하늘의 색을 관
찰하여 그해 1년의 기운을 추단하는 방법으로 『素
問』의 운기편에는 나오지 않고 『玄珠密語』에 있는
내용이다. 원문은 생략한다.

3) 五運의 태과불급에 따른 治法을 제시함

그는 客運이 主運의 위에서 운행하고 客氣가 主
氣의 위에서 운행하여 天時가 不齊하게 되고 民病이

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五運의 태과불급에 대
한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六甲의 해에 土運이 太過하니 곧 雨濕이 流行하
여 濕病이 이에 생기고 腎水가 邪를 받게 되니 治法
은 마땅히 濕을 除去시키어서 腎을 補해야 하고 六
己의 해에 土運이 不及하니 곧 木氣가 乘旺하여 도
리어 風化를 나타내므로 風病이 이에 行하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益脾케 하여서 木旺을 平하게 해야
하고 六丙의 해에 水運이 太過하니 곧 寒氣가 大行
하여 寒病이 이에 생기고 心火가 邪를 받게 되니 治
法은 마땅히 寒을 驅逐하여서 心을 補해야 하고 六
辛의 해에 水運이 不及하니 곧 土氣가 乘旺하여 도
리어 濕化를 나타내므로 濕病이 이에 行하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腎을 補하여서 濕을 除해야 하고 六
戊의 해에 火運이 太過하니 곧 熱氣가 大行하여 熱
病이 이에 생기고 肺金이 邪를 받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火를 降下시키어서 肺를 補해야 하고 六癸의
해에 火運이 不及하니 곧 水氣가 乘旺하여 도리어
寒化를 나타내므로 寒病이 이에 行하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火心을 補하여서 寒을 驅逐해야 하고 六庚의
해에 金運이 太過하니 곧 燥氣가 流行하여 燥病이
이에 생기고 肝木이 邪를 받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燥를 清涼케 하여서 肝을 補해야 하고 六乙의 해에
金運이 不及하니 곧 火氣가 乘旺하여 도리어 熱化를
나타내므로 熱病이 이에 行하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肺를 清하게 하여서 火를 降下시켜야 하고 六壬의
해에 木運이 太過하니 곧 風氣가 大行하여 風病이
이에 생기고 脾土가 邪를 받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木旺을 平하게 하여서 脾를 補해야 하고 六丁의 해
에 木運이 不及하니 곧 金氣가 乘旺하여 도리어 燥
火를 나타내므로 燥病이 이에 行하게 되니 治法은
마땅히 肝을 補하여서 燥를 清하게 하여야 하니 이
것은 客運에 대한 治法인 것이다.(六甲년에 土運이
太過하면 則雨濕이 流行하여 濕病이 乃生하고 腎水
受邪하니 治는 當除濕以補腎이오 六己년에 土運이
不及하면 則木氣乘旺에 反見風化하여 風病이 乃行하
니 治는 當益脾以平木이오 六丙년에 水運이 太過하
면 則寒氣大行하여 寒病이 乃生하고 心火受邪하니

14)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p.272-274.

15)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276.

16)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p.207-208.

治는 當逐寒以補心이오 六辛년에 水運이 不及하면 則土氣乘旺에 反見濕化하야 濕病이 乃行하니 治는 當補腎以除濕이오 六戊년에 火運이 太過하면 則熱氣 大行하야 熱病이 乃生하고 肺金이 受邪하니 治는 當 降火以補肺오 六癸년에 火運이 不及하면 則水氣乘旺 에 反見寒化하야 寒病이 乃行하니 治는 當補心以逐 寒이오 六庚년에 金運이 太過하면 則燥氣流行하야 燥病이 乃生하고 肝木이 受邪하니 治는 當清燥以補 肝이오 六乙년에 金運이 不及하면 則火氣乘旺에 反 見熱化하야 熱病이 乃行하니 治는 當清肺以降火오 六壬년에 木運이 太過하면 則風氣大行하야 風病이 乃生하고 脾土受邪하니 治는 當平木以補脾이오 六丁 年에 木運이 不及하면 則金氣乘旺에 反見燥化하야 燥病이 乃行하니 治는 當補肝以清燥니 此는 客運之 治法也니라¹⁷⁾

위에서는 평기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일반 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임상에 활용할 때 이점 을 고려하여야 한다.

4)心得한 내용을 기술

몇 가지만 뽑아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천은 『內經』에 있는 “夫陰陽者是 天地之 道也오 萬物之綱紀오 變化之父母오 生殺之本始오 神 明之府也니라”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綱紀란 春의 生, 夏의 長, 長夏의 化, 秋의 成收, 冬의 藏하는 綱紀를 말한 것이고 父母란 萬物有形の 먼저를 말한 것이고 本始란 生하고 殺하는 것이 모 두 이로 因하여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이룸이다. 무릇 氣를 품부하여 형체를 둔 것으로 五運 陰陽이 총섭 하지 않는 것이 없다. 造化가 끝이 없어 能히 萬物 의 生化하는 元始가 된 所以는 무엇인가? 그 神明의 生育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니 모이고 분리됨이 不測 하고 生하고 化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神明이 아니 면 能히 할 수 없다(綱紀는 謂生長化收成藏之綱紀也 요 父母는 謂萬物形之先也요 本始는 謂生殺이 皆因

17)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p.242-244.

而有之也라 夫有形稟氣而不爲五運陰陽之所攝者是 未 之有也니 所以造化不極하야 能爲萬物生化之元始者는 何也오 以其始神明之有故也니 合散이 不測하고 生化 無窮은 非神明이면 無能也라¹⁸⁾

이는 이천의 독창적인 주석으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

둘째 가을에 燥氣가 流行하는 것에 대해 “金爲丙 婦하야 帶火之氣故로 燥也라¹⁹⁾”고 하였다. 이는 天 干에서 丙辛이 相合하고 이때 丙火가 陽干으로 夫가 되고 辛金이 陰金으로 婦가 되어 夫婦一體가 되어 丙火의 氣운이 가을에 유행하여 燥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낙서에서도 서방에 7火가 배속되어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

셋째 “陰陽之神은 不可得而見也어니와 支干之迹 은 可得而求之也라²⁰⁾”하였고 註에서 “天地陰陽은 以象하니 不以數推오 推(惟)憑支干則可測焉이라(천 지의 음양은 象으로써 나타나니 數로써는 추리하지 못하고 오직 干支에 의거해야만 측정할 수 있다)²¹⁾”고 하여 오운과 육기를 干支로써 파악해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넷째 자연의 운기와 병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치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天에 있는 運氣도 있고 사람에게 있는 運氣도 있 으니 天時가 勝하면 곧 사람의 병은 버리고 天時를 따르고 사람의 병이 勝하면 天時는 버리고 사람의 병을 따를 것이다. 張子和는 말하기를 病이 가령 當 年運氣가 아니거던 어떤 候의 運氣와 같은 가를 볼 것이다. 다만 某年을 向하여 活法을 求한다면 마야

18)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p.201-203.

19)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205.

20)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212.

21)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승문사. 1978. p.213.

호로 모두가 「至眞要大論」中에 있음을 알 것이다(有在天之運氣하고 有在人之運氣하니 天時勝이면 則舍人之病而從天之時하고 人病이 勝이면 則舍天之時而從人之病이라 張子曰 病如不是當年氣어든 看與何年運氣同이라 只向某年求活法이면 方知都在至眞中이라 하니라)²²⁾”

위의 내용은 운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의사가 종합 판단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강조한 내용으로 중요의의가 있다.

5) 主運과 약의 기준에 대한 교정

이천은 73일 05刻씩 지배하는 主運의 구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詩曰大寒木運始行初오 清明前三火運居라 芒種後三土運是오 立秋後六金運推라 立冬後九水運伏하니 周而復始萬年如라²³⁾ 하였다.

주운의 파악은 24절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24절기는 양력에 고정되어 있다. 이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교정한 時憲曆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시헌력은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이다. 시헌력은 1645년부터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도입하여 1653년부터 시행하였다. 시헌력은 平氣法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定氣法을 사용하였다. 평기법은 동지를 기점으로 24절기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고 정기법은 황도를 15도씩 분할하여 태양이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취한 것이다.

이천선생이 살았던 당시에는 시헌력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지금 새롭게 교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은 「類經圖翼」과 임응추의 『運氣學說』에 있는 내용과 의학입문의 詩를 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大寒木運始行初오 清明前三火運居라 芒種後十土運是오 處暑後七金運推라 立冬後四水運伏하니 周而

復始萬年如라²⁴⁾

『유경도익』과 임응추의 책에는 二運의 시작이 春分後十三日로 되어 있으나 清明前 3일과 같기 때문에 清明前 3일을 그냥 따랐다.

3. 徐亦禪의 運氣商

『運氣商』1권은 명나라때 徐亦禪(禪은 稚와 同)가 지은 책으로 崇禎 7년 甲戌年(1634)에 간행되었다. 徐氏의 생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이 책 속의 3편의 서문과 발문 및 여러 친구들이 그의 書齋에 대해서 증정한 말들을 참고해 보면 그의 字는 季儒이고 浙江성 杭州사람으로 佛經을 외우고 공부하던 居士였다. 그는 어려서 儒學을 공부했고 뒤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內經』을 연구했다. 책 속에 있는 12조문의 「運氣治驗」을 통해 보건대 그의 의술은 대단히 뛰어나 이론에도 밝았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독창적인 깨달음이 있었으며 脈法과 辨證에서도 모두 뛰어난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일찍부터 養生을 좋아하였고 또 참선수행을 하였다. 그의 친구 陳繼儒는 跋文에서 그에 대해 “詩中有禪하고 禪中有詩라”고 칭찬하였다. 당시 杭州의 書法家 董仲伯은 그에게 “願壽”라는 두 글자를 크게 써 주었는데 그는 이것으로 書室의 명칭을 삼아 “願壽齋”라 불렀다.

이 책은 그가 『內經』의 운기학설을 연구하고 商量하여 완성했기 때문에 『運氣商』이라고 명명하였다.

『運氣商』의 주된 내용은 운기이론을 闡發하고 정밀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를 凡例에서는 “첫째 오직 運氣學說을 발명하고 널리 氣化의 이치를 제시하였고 둘째 운기의 요점을 뽑아 病機와 治法을 드러내었으며 셋째 이치를 파악하고 四時에 참고하여 變通하여 立方하는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²⁵⁾라고 하였다. 비록 운기학설이 심오하고 범위가 넓으며

22)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국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송문사. 1978. pp.274-275.

23)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국역편주의학입문. 서울. 송문사. 1978. p.217.

24) 임응추. 운기학설.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2. p.51.

25) 徐亦禪. 運氣商. 북경. 중의고적출판사. 2009. p.1.

浩繁하여 연구가 쉽지 않고 玄渺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듯 하지만 또한 간단명료하게 쉽게 배워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 쉬운 곳으로부터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러 능히 활용할 수 있다.

책은 前後 兩集으로 되어 있다. 前集에는 운기도 4쪽, 운기설 7편, 운기치험 12조, 運氣徵應 4조가 실려 있고 後集에는 「運氣博說」이 있고 「歲氣起大寒說」 등 24論 이 있다. 책의 말미에는 『運氣商跋』과 『願壽贈言』이 있는데 모두 名士, 法師, 上人 33名の 詩文이 있다.

추단과 연역을 중시하고 圖表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운기저작과는 달리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깊은 내용이지만 쉽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운기이론에 대한 성취를 논술하고 있는데, 每 條文은 모두 독립적으로 成篇된 논문이고 每 句節마다 모두 깊은 이치가 담겨있는 요약된 말들이다. 예를 들면 그는 「運氣病機說」에서 “詳夫氣化之爲病 則 即 淫勝鬱復之理而求之也라”고 하였고, “五運之太過曰淫이오 六氣之有餘曰勝이라 然이나 淫則必鬱하고 勝則必復하니 此天道盈虛消息之理也라”고 하였으며, “病機之源은 是氣運有淫勝之變이라²⁶⁾”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몇 구절의 내용만을 통해 보더라도 “病機”에 대해 투철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運氣病機說」의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氣化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곧 淫勝鬱復의 이치에 나아가서 이를 구해야 한다. 五運의 太過를 淫이라 하고 六氣의 有餘를 勝이라 하는데, 淫하면 반드시 鬱하게 되고 勝하면 반드시 復하게 되니 이는 天道가 盈虛消息하는 이치이다. 淫勝의 常變하는 이치를 살피고 鬱復의 屈伸하는 상황을 밝히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을 여기에서 터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간략하게 논해보기로 한다. 대저 五運은 甲丙戊庚壬을 陽으로 삼아 太過之年으로 보고, 乙丁己辛癸를 陰으로 삼아 不及之年으로 본다. 오직 太過의 해에 그 德을 힘쓰지 않고 넘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淫이라고 한다. 그런데 淫하게 되면 반드시 鬱

하게 되고 그 鬱이 極에 이르면 드디어 폭발하게 되니, 마치 水가 發하면 우박과 눈이 내리게 되고, 土가 發하면 폭풍과 소나기가 나타나게 되고, 木이 發하면 蠶손과 과피가 발생하고, 金이 發하면 곧 清明하게 되고, 火가 發하면 심히 어두어지는 것처럼 이들은 모두 鬱發의 象에 속한다. 六氣는 이와 달리 相勝의 법칙이 있다. 혹은 間氣가 오히려 司天을 勝하기도 하고, 혹은 間氣가 서로 克勝하는 故로 이를 勝이라고 한다. 하지만 勝하면 반드시 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木이 勝하면 土를 侮하게 되고 가을에 이르러서는 金이 旺盛해지게 된다. 金은 土의 子식이니 子가 母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다. 亢極한 木이 強金에 의해 報復을 당하게 되면 勝氣는 곧 平정되니 이 또한 承制의 이치이다. 六氣의 氣化에서 비롯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만약 木運이 太過하면 風氣가 流行하여 脾土가 邪氣를 받는다. 사람들은 殞泄, 食減, 體重, 煩冤, 腸鳴, 腹支滿 등의 병을 앓게 되고, 그 太過가 극심해진 경우에는 때때로 暈을 잘 내고, 眩暈, 巔疾이 생긴다. 火運이 太過하면 暑熱이 유행하여 肺金이 邪氣를 받는다. 사람들은 瘧疾, 少氣, 咳喘, 口鼻出血, 大小便出血, 설사, 噎燥, 耳聾, 中熱, 肩背熱 등의 병을 앓게 되고, 그 太過가 극심해진 경우에는 胸中痛, 脇支滿, 脇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身熱, 骨痛이 나타나고 浸淫症이 생긴다. 土運이 太過하면 雨濕이 유행하여 腎水가 邪氣를 받는다. 사람들은 腹痛, 四肢厥冷, 기운이 抑鬱不樂, 體重, 煩冤하는 병을 앓게 되고, 그 太過가 극심해진 경우에는 肌肉萎, 足痿不能行, 飲發中滿, 食減, 四肢不舉가 나타난다. 金運이 太過하면 燥氣가 유행하여 肝木이 邪氣를 받는다. 사람들은 兩脇下痛, 少腹痛, 目赤痛, 眚瘍, 耳無所聞하는 병을 앓게 되고, 그 太過가 극심해진 경우에는 喘咳, 逆氣, 肩背痛, 尻陰股膝髀臑筋足이 모두 병이 든다. 水運이 太過하면 寒氣가 유행하여 邪氣가 心火를 傷害한다. 사람들은 身熱, 煩心, 躁悸, 陰厥, 上下中寒, 譫妄, 心痛의 병을 앓게 되고, 그 太過가 극심해진 경우에는 腹大, 脛腫, 喘咳, 寢汗出, 憎風 등이 나타난다. 이상은 五氣의 太過에 대해 예를 들어 밝혀준 것이다. 그리고

26) 徐亦樞. 運氣商. 북경. 중의과학출판사. 2009. p.4.

鬱復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모두 『素問天元紀大論』등 篇에 실려 있으니 여기에서는 번거롭게 글을 실어놓지 않겠다. 이는 內經에서도 “요점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나지만 요점을 모르면 끝없이 흘러가고 흘러진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運氣는 淫勝의 變化가 있고 사람들의 질병은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기에, 내가 病機의 根源에 나아가 마음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진실로 『內經』의 要旨를 익숙하게 음미해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인용한 말들이 어찌 능히 聖賢들의 깊은 속뜻을 모두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오직 古事에 정통하고 현실에서 검증한다면 자연히 道에 들어가는 기회와 인연이 있게 될 것이다(詳夫氣化之爲病 건대 即淫勝鬱復之理而求之也라 五運之太過曰淫이오 六氣之有餘曰勝이라 然이나 淫則必鬱하고 勝則必復하니 此天道盈虛消息之理也라 察淫勝之常變하고 明鬱復之屈伸하면 而民生受病之因을 於斯得矣리라 今則槩而論之하노라 夫五運은 以甲丙戊庚壬으로 爲陽하니 爲太過之年이오 乙丁己辛癸로 爲陰하니 爲不及之年이라 惟太過而不務其德이면 有淫泆之志焉이라 故謂之淫이라 然이나 淫則必鬱하고 鬱極乃發하면 如水發而雹雪하고 土發而飄驟하고 木發而毀折하고 金發而清明하고 火發而暍昧하니 皆鬱發之象也라 六氣則有相勝之道焉이라 或問氣가 反勝司天하고 或問氣가 互相克勝故로 謂之勝이라 然이나 勝則必復하니 如木勝侮土하면 至秋金旺이라 金爲土子니 爲母復仇라 夫亢極之木이 遭報復強金이면 而勝氣乃平하니 此亦承制之理也라 其氣化之爲病을 亦略例明之하노라 如歲木太過하면 風氣流行하야 脾土受邪라 民病은 飧泄하며 食減體重하며 煩冤腸鳴하며 腹支滿하고 甚則忽忽善怒하며 眩冒巔疾이라 歲火太過하면 炎暑流行하야 金肺受邪라 民病은 瘧하며 少氣 欬喘하며 水溢 血泄하며 注下하며 噎燥耳聾하며 中熱 肩背熱하고 甚則胸中痛하며 脇支滿하며 脇痛하며 膺背肩胛間痛하며 兩臂內痛하며 身熱骨痛而爲浸淫이라 歲土太過하면 雨濕流行하야 腎水受邪라 民病은 腹痛하며 清厥하며 意不樂하며 體重

煩冤하고 甚則肌肉萎하며 足痿不能行하며 飲發中滿하며 食減하며 四支不舉라 歲金太過하면 燥氣流行하야 肝木受邪라 民病은 兩脇下少腹痛하며 目赤痛하며 眇瘍하며 耳無所聞하고 甚則喘欬逆氣하며 肩背痛하며 尻陰股膝髀膕筋足이 皆病이라 歲水太過하면 寒氣流行하야 邪害心火라 民病은 身熱하며 煩心躁悸하며 陰厥하며 上下中寒하며 譫妄 心痛하고 甚則腹大脰腫하며 喘欬하며 寢汗出 憎風이라 此는 舉五氣之太過而例明之也라 夫欲知鬱復之詳인댄 具見素問天元紀大論等篇하니 文繁不贅라 然이나 經亦曰 知其要者는 一言而終이어나와 不知其要면 流散無窮이라 하니 此之謂也라 惟氣運은 有淫勝之變하고 而民病이 因之以生故로 予謂即病機之源하야 不可不究心焉者는 誠能熟玩內經旨趣면 則其理自明矣라 然이나 予特弄引之言이 豈能盡聖賢底蘊哉리오 尊生者가 惟博古而驗今하면 則自有入道之機緣在也리라)27)

그 외에 저자는 또 運氣脈診의 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南北政과 “天地之變無以診脈” 등과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론과 공허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벗어나 脈理, 運氣理論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風寒濕者는 脈多浮弦繁하고 火暑燥者는 脈多浮洪大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六氣明證說」에서 運氣理論으로 六氣와 六經病의 관계를 闡述하였고, 나아가서 또 六氣之化로 초래된 각종 病候의 기전을 제시하였는데, 차원 깊은 분석과 면밀한 설명은 모두 그의 탁월한 안목과 스스로의 심득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논술에서 저자의 깨달음이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天道는 常於不足處에 行去하니 是也라”와 “熱火之氣化는 則有感通之理而受病焉이라” 그리고 “內熱與客熱相符하니 同氣相求라” 등등이 있다. 그는 “天主氣오 地主形이라”와 六氣之化로 1년 과정의 6개 시간대의 기후특징을 해설하였고, 나아가서 季節性流行病의 병기를 해설하였다. 예를 들어 학질을 논함에 “瘧本少陽相火”라 하고 “瘧兼暑熱”이라 하였으며, 痢의 病源은 “痢因於暑”이지만 병리적

27) 徐亦釋. 運氣商. 북경. 중의고적출판사. 2009. pp.4-6.

으로는 “暑爲寒邪”라 한 것 등등은 정밀하면서도 핵심을 잘 꿰고 있다. 『素問氣交變大論』에서 “善言天者는 必驗於人이라”고 하였는데, 저자는 자신의 12개의 治驗례로 운기이론을 임상에 응용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삼았다.

本書속에는 또 운기이론을 가지고 기후현상을 예측하고 해석하는데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雨候”, “梅雨”, “陣雨” 등에 대하여 氣化之理로 계절 六氣의 亢害勝復의 이론에 따라 闡述하고 있는데 현대 기상학 이론과도 잘 부합된다. 이는 의학뿐만이 아니고 농업 그리고 가뭄과 장마의 예측 등에도 실용적인 의의가 있다.

4. 張介賓의 類經圖翼 運氣

『유경도익』은 명대의 의학가 張介賓이 지은 책이다. 장개빈은 이 책을 짓기에 앞서 『類經』을 완성하였다. 『類經』의 「運氣類」는 운기7편과 기타 『素問』 『영추』의 운기관련내용을 모아 주석을 하였는데 내용이 명쾌하고 핵심을 지적하여 『내경』의 운기편을 연구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유경도익』은 『類經』을 이어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 그림을 추가하여 설명을 가하였다. 이 책은 모두 11卷으로 되어 있는데 運氣부분은 제일 앞에 설명되어 있고 上下2권으로 되어 있다. 운기상하는 그림과 설명이 있는데 그림으로써 綱을 삼고 설명을 추가하여 全面的으로 오운육기의 내용을 論述하였다. 이 책은 운기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전의 운기관련 내용을 집대성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장개빈은 음양오행이론뿐만 아니라 天文, 曆法, 氣數, 律呂 등의 학문에 폭넓은 지식이 있었고 특히 『周易』의 象數와 易理에 정통하여 운기이론을 깊이 있게 闡發하였다.

1) 運氣上

運氣上에서는 太極, 陰陽, 五行, 日刻, 二十四氣七十二候, 斗綱, 十二辰次六合, 二十八宿, 氣數, 九州 등 오운육기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지식을 설명하는데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태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태극은 천지만물의 시초이다……주자께서 말씀하셨다. 태극이 나누어지면 다만 2개의 음양일 뿐이니 음기가 유행하면 양이 되고 양기가 멎어서 모이면 음이 된다. 소장하고 진퇴함에 천만가지 변화가 일어나 천지간의 무한한 일이 지어져서 나오니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음양이 아닌 것이 없으며 또 가는 곳마다 태극이 아닌 것이 없으니 대저 태극은 이치일 따름이다(太極者는 天地萬物之始也라……朱子曰 太極分開하면 只是兩個陰陽이니 陰氣流行則爲陽이오 陽氣凝聚則爲陰이라 消長進退에 千變萬化하야 做出 天地間無限事來하니 以故로 無往而非陰陽이며 亦無往而非太極이니 夫太極者는 理而已矣라 하니라)²⁸⁾

그는 태극은 理로써 우주의 본체가 되고 음양은 태극의 작용이 되어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과계가 있다고 하였다. 장개빈은 음과 양, 氣와 數, 八卦와 運氣사이의 상호의존, 相互資生의 상관 관계를 정밀하게 논술하였다.

『氣數統論』의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氣)는 천지의 기후이고 수(數)는 천지의 정수(定數)이다. 천지의 도(道)는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 진(盡)하며, 승강(升降)에 때가 있어 기후가 행(行)해지고, 음양에 수(數)가 있어 차례가 정해진다. 차례가 정해지면 선후가 이에 따라 정해지고, 기후가 행해지면 계절의 순서가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계절의 순서가 나누어지는 것은 한서(寒暑)가 거듭 교체됨으로 인한 것이고, 한서가 교체되는 것은 해가 운행하는 도수가 다름으로 인한 것이다. 매해의 기후에서 양(陽)은 자시(子時)에서 생겨나 오시(午時)에서 극에 이르며, 음(陰)은 오시에서 생겨나 자시에서 극에 이르니, 양이 나아가는 것이 음이 물러나는 것이고 양이 물러나는 것이 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서로 왕래함으로써 한 해를 이룬다.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동지 전 45일은 금년(今年)에 속하고 동지 후 45일은 명년(明年)에 속하며, 자시(子時) 전 4각은 금일(今日)에 속하고 자시 후 4각은 명일(明

28)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성보사. 1982. pp.1-2.

日)에 속한다”고 하였고, 소자(邵子)는 “동지날 자시(子時) 중간은 천심(天心)이 변경하여 옮기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말들은 모두 한 해 기후의 종시(終始)가 모두 자시 반에 있고 동짓날에 두병(斗柄)이 바로 자중(子中)에 놓여 있으니 이때가 한 해의 수미(首尾)임을 말한 것이다. 한 해에 365일 25각이 있는데 주천(周天)의 도(度)로 하면 모두 365도 1/4도이다. 천(天)의 행함은 빠르므로 하룻낮 하룻밤에 한 바퀴 다 돌고 하루에 1도를 더 가며 해의 행함은 약간 더디어 매일 하늘보다 1도를 적게 돈다. 무릇 365일 25각을 행함에 하늘보다 한 바퀴 적게 돌아 다시 본래의 자리에 이르러 하늘과 만나는데, 이것이 한 해가 된다. 때문에 한 해의 일수(日數)는 천의 도수(度數)에 의하여 정해지고, 천의 도수는 실로 해가 운행한 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한 해에 12개월이 있는 것은 달이 하늘을 운행하는 것으로 또 해보다 더디어 매일 하늘보다 13도 7/19도 적어 지는바 29일 499/940일을 쌓이면 해와 함께 합삭(合朔)하여 한 달이 된다. 한 해에 십이회(十二會)가 있으므로 12개월이 되고, 두(斗)에 십이건(十二建)이 있으므로 십이진(十二辰)이 된다. 북두칠성이 세우는 것이 땅 위의 진(辰)이고 진(辰)이 모이는 곳이 하늘에서의 차니 두(斗)와 진(辰)이 합(合)함에 월건(月建)이 소연(昭然)해진다. 그러므로 11월에 월건(月建)은 자(子)에 있고 일양(一陽)의 괘(卦)는 복(復)이며, 12월에 월건은 축(丑)에 있고 이양(二陽)의 괘로 임(臨)이며, 정월에 월건은 인(寅)에 있고 삼양(三陽)의 괘로 태(泰)이며, 2월에 월건은 묘(卯)에 있고 사양(四陽)의 괘로 대장(大壯)이며, 3월에 월건은 진(辰)에 있고 오양(五陽)의 괘로 쾌(夬)이며, 4월에 월건은 사(巳)에 있고 육양(六陽)의 괘로 건(乾)이며, 5월에 월건은 오(午)에 있고 일음(一陰)의 괘로 구(姤)이며, 6월에 월건은 미(未)에 있고 이음(二陰)의 괘로 돈(遯)이며, 7월에 월건은 신(申)에 있고 삼음(三陰)의 괘로 비(否)이며, 8월에 월건은 유(酉)에 있고 사음(四陰)의 괘로 관(觀)이며, 9월에 월건은 숭(戌)에 있고 오음(五陰)의 괘로 박(剝)이며, 10월에 월건은 해(亥)에 있고 육음(六陰)의 괘로 곤(坤)인데, 이것이 한 해의 기(氣)가 되며 그 일월(日月)

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氣者는 天地之氣候오 數者는 天地之定數라 天地之道는 一陰一陽而盡之니 升降有期而氣候行하고 陰陽有數而次第立이라 次第既立하면 則先後因之而定하고 氣候既行하면 則節序由之而成이라 節序之所以分者는 由寒暑之再更이오 寒暑之所以更者는 由日行之度異라 每歲之氣는 陽生于子而極于午하고 陰生于午而極于子하니 陽之進者는 陰之退하고 陽之退者는 陰之生하야 一往一來에 以成一歲라 朱子曰 冬至前四十五日是 屬今年하고 後四十五日是 屬明年하며 子時前四刻은 屬今日하고 後四刻은 屬明日이라하니라 邵子曰 冬至子之半에 天心無改移라 하니 是俱言一歲之氣가 終始皆在于子半 而冬至之日은 正當斗柄建于子中하니 是爲一歲之首尾也라 歲有三百六十五日二十五刻者는 以周天之度로 凡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也라 天之行은 速 故로 于一晝一夜에 行盡一周而過日一度하고 日行稍遲하야 每日少天一度라 凡行三百六十五日二十五刻에 少天一周하고 復至舊處而與天會하니 是爲一歲라 故歲之日數는 由天之度數而定하고 天之度數는 實由于日之行數而見也라 歲有十二月者는 以月之行天으로 又遲于日하야 每日少天十三度九分度之七이니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하면 與日合朔而爲一月이라 歲有十二會故로 爲十二月이오 斗有十二建 故로 爲十二辰이라 斗之所建이 地上辰이오 辰之所會가 天上차니 斗與辰合而月建昭然矣라 故로 十一月은 建在子하고 一陽卦復이며 十二月은 建在丑하고 二陽卦臨이며 正月은 建在寅하고 三陽卦泰며 二月은 建在卯하고 四陽卦大壯이며 三月은 建在辰하고 五陽卦夬며 四月은 建在巳하고 六陽卦乾이며 五月은 建在午하고 一陰卦姤며 六月은 建在未하고 二陰卦遯이며 七月은 建在申하고 三陰卦否며 八月은 建在酉하고 四陰卦觀이며 九月은 建在戌하고 五陰卦剝이며 十月은 建在亥하고 六陰卦坤이니 是爲一歲之氣而統言其月日也라)²⁹⁾

2) 運氣下

運氣下에서는 五運六氣의 이론에 대해서 圖像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성보사. 1982. pp.26-27.

첫째 主運에도 태과불금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五運主運圖說」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지 세기(歲氣)는 음양으로 나누고 주운(主運)에 태(太)와 소(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령 갑년은 양토(陽土)로 운(運)이 태궁에 속하고 용사(用事)함에 위로 추산하여 초운(初運)인 각(角)에 이르면 그 태궁을 낳은 것이 소치이고 소치를 낳은 것은 태각이다. 이 때문에 갑년의 주운이 태각에서 시작하고 태소가 상생하여 태우에서 그친다. 기년(己年)은 음토(陰土)로 운이 소궁에 속하고 용사(用事)함에 위로 추산하여 초운(初運)인 각(角)에 이르면 그 소궁을 낳은 것이 태치이고 태치를 낳은 것은 소각이다. 이것은 기년의 주운이 소각에서 시작하고 역시 소태(少太)가 상생하여 소우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또 가령 을년(乙年)은 음금(陰金)으로 운이 소상에 속하고 위로 추산하여 초운(初運)인 각(角)에 이르면 그 소상을 낳은 것이 태궁이고 태궁을 낳은 것이 소치이며 소치를 낳은 것이 태각이다. 이것은 을년의 주운이 태각에서 시작하며 태우에서 그친다는 것이다. 경년은 태상(太商)으로 위로 추산하여 각(角)에 이르면 소각에 속하고 소우에서 그친다. 나머지 해들도 이를 본뜬다. 이것은 주운의 기가 반드시 각(角)에서 시작하여 우(羽)에서 끝나니, 일정하여 변하지 않으며 때로써 交司하여 매해의 정상 시령이 된다(但歲氣는 分陰陽而主運有太少之異耳라 假如甲年爲陽土니 運屬太宮用事 而上推至初運之角하면 則其生太宮者는 少徵也오 生少徵者는 太角也라 是以로 甲年之主運은 起太角하고 太少相生而終於太羽라 己年爲陰土니 運屬少宮用事 而上推至初運之角하면 則其生少宮者는 太徵也오 生太徵者는 少角也라 是己年之主運은 起少角하고 亦少相生而終於少羽也라 又如乙年爲陰金이니 運屬少商 而上推至初運之角하면 則其生少商者는 太宮也오 生太宮者는 少徵也오 生少徵者는 太角也라 是乙年之主運은 起太角而終於太羽라 庚年爲太商이니 上推至角하면 屬少角而終於少羽也니 餘年仿此라 此主運之氣가 必始于角而終於羽하야 一定不易이오 以時交司 而爲每歲之常令也니라)³⁰⁾

이는 『素問』 「六元正紀大論」의 내용을 가지고 더욱 쉽고 간단하게 主運의 태과 불금을 설명한 내용으로 이전의 운기서적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둘째 各年の 오운의 交司日時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도 역시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法古創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申子辰年]

- 初運 大寒日寅初初刻起
- 二運 春分後第十三日寅正一刻起
- 三運 芒種後第十日卯初二刻起
- 四運 處暑後第七日卯正三刻起
- 五運 立冬後第四日辰初四刻起

[巳酉丑年]

- 初運 大寒日巳初初刻起
- 二運 春分後第十三日巳正一刻起
- 三運 芒種後第十日午初二刻起
- 四運 處暑後第七日午正三刻起
- 五運 立冬後第四日未初四刻起

[寅午戌年]

- 初運 大寒日申初初刻起
- 二運 春分後第十三日申正一刻起
- 三運 芒種後第十日酉初二刻起
- 四運 處暑後第七日酉正三刻起
- 五運 立冬後第四日戌初四刻起

[亥卯未年]

- 初運 大寒日亥初初刻起
- 二運 春分後第十三日亥正一刻起
- 三運 芒種後第十一日子初二刻起
- 四運 處暑後第七日子正三刻起
- 五運 立冬後第四日丑初四刻起³¹⁾

셋째 남북정의 복잡한 내용을 「南北政歌」와 「南北政指掌圖」를 그려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北政歌

30) 장개빈. 유경도의의. 서울. 정보사. 1982. p.44.

31) 장개빈. 유경도의의. 서울. 정보사. 1982. pp.44-46.

앞의 두 구절은 촌(寸)을 말하고 뒤의 두 구절은 척(尺)을 말한다(前二句는 言寸하고 後二句는 言尺이라) 南政子午兩寸沈이오 丑未巳亥左右尋이라(左右寸也) 卯酉兩尺寅申左이오(左尺) 辰戌右尺眞分明이라 北政陽明沉兩寸이오 太陽少陽左右應이라(左右寸也) 少陰兩尺厥陰左오(左尺) 太陰右尺何須問고, 이 남북정가에 대해서 장개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법(法)은 남정(南政)의 자년(子年)은 중지(中指) 끝에서 시작하고 북정(北政)의 자년은 중지의 뿌리에서 시작하는데 모두 역행(逆行)하여 차례로 돈다. 무릇 연진(年辰)이 와 닿는 곳이 곧 그 응하지 않는 자리이다. 예컨대 남정 자년은 중지 끝에서 시작하니 곧 양쪽 촌맥이 응하지 않고, 축년에는 왼쪽 촌맥이 응하지 않고, 인년에는 왼쪽 척맥이 응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헤아리면 모두 남정년에 응하지 않는 자리이다. 북정 자년은 중지 뿌리에서 시작하여 앞과 같이 오른쪽으로 끝까지 헤아리면 모두 북정년에 응하지 않는 자리이다.³²⁾

예를 들어 甲子年은 甲己化土하여 南政年이 된다. 남정년은 중지 끝에서 시작하고 子年은 처음이라 중지 끝에 해당함으로 兩寸이 不應한다. 이것이 남북정가의 南政子年兩寸沈에 해당한다. 乙丑年은 乙庚化金하고,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와 함께 北政年이 된다. 북정년은 中指根에서 시작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丑은 無名指의 根에 해당하니 右尺이 不應한다. 丙寅年은 북정년이라 中指根에서 시작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무명지 끝에 해당하니 右寸이 불응한다. 丁卯年은 북정년이라 中指根에서 시작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중지 끝에 해당하니 兩寸이 不應한다. 이것이 남북정가의 北政陽明沈兩寸에 해당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Fig.1 A picture explaining South and North Politics with fingers.(南北政指掌圖)



Ⅲ. 운기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說과 운기를 부정하는 說

明代에 이르러 운기학설이 보편화되면서 운기학설의 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운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아서 안 된다는 說과 운기학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가의 주장을 통해 운기학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黃承昊의 治病不可拘執于五運六氣

오운육기설은 내경에서 상세히 언급하였고 후현들의 주석을 통해 더욱 상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天時와 民病을 살펴보면 相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어찌 고금의 운기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근래에 항주의 서계유

32) 장개빈. 유경도의의. 서울. 정보사. 1982. p.71.

가 『운기상』을 출판하였으니 말한 것이 아주 자세하고 間氣에 대해서 천발한 것이 아주 정밀하나 天時와 民病을 살펴보건대 또한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나름대로 살펴보건대 병을 치료하는 자는 그 학설을 터득하고 마음에 담아 약을 쓸 때 약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相火가 司天하고 또 火運이 겹쳐서 운행하면 약을 쓸 때 지나치게 熱한 약을 써서는 안 되니 “熱無犯熱”의 금기를 준수해야 하니 寒할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相火가 司天하였으나 水運이 行하면 열한 약을 써도 무방하고 혹 金運, 土運이 行하더라도 구애받지 않아도 될 듯하다. 만약 교주고슬하여 구애받아서 고집한다면 도리어 막히고 장애받는 것이 많아져서 잘못될까 두렵다. 하물며 天時를 버리고 증상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증상을 어겨가면서 천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내경에서 “必先歲氣 無伐天和”라고 말한 두 구는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先哲이 “熱無犯熱 寒無犯寒”의 說은 여름에 열한 약을 써서는 안 되고 겨울에 찬 약을 써서는 안 되며 봄에는 木氣를 조장해서는 안 되고 가을에는 金氣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본초강목』을 읽어보니 이시진이 말하기를 봄에는 마땅히 辛溫한 약을 써서 春升之氣를 순조롭게 하며 여름에는 마땅히 辛熱한 약을 써서 夏浮之氣를 순조롭게 하며 가을 겨울도 이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상의 두 설이 서로 배치되니 어느 설을 따라야 하는가. 『내경』을 보건대 또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승강부침은 순조롭게 해주고 한열온량은 逆治法을 쓴다 하였으니 이 두 말에서 定論이 나온다.

봄에는 마땅히 春升之氣를 순조롭게 하여 올려주고 가을에는 마땅히 秋降之氣를 순조롭게 하여 내려주어야 하지만 夏浮冬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辛熱하고 苦寒한 약으로 浮之하고 沈之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박하, 향유 등은 浮하게 하는 약제가 아닌가. 지황, 우슬 등은 沈하게 하는 약제가 아닌가. 이 四時는 같은 例로서 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逆之라는 것은 寒症이면 열한 약을 쓰고 熱症이면 찬 약을 쓰며 溫症이면 서늘한 약을 쓰고

涼症이면 溫한 약을 쓰는 것이니 어찌 승강부침의 例로서 논할 것인가. 『내경』에서 또 이르기를 봄에는 산미를 줄이고 감미를 더하여 脾를 도와주고 여름에는 고미를 줄이고 辛味를 더하여 肺를 도와준다고 말했다. 봄은 목기가 왕성하고 토기가 휴손되기 때문에 목기를 누르고 토기를 도와줄 것이요 여름에는 火氣가 왕성하고 금기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화기를 누르고 금기를 도와준 것이니 거슬러서 치료한다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 순조롭게 한다는 설에 이르러서는 또한 用藥之理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개괄적으로 論한 것이다. 또 마땅히 天時를 버리고 증상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애받아서 안 된다. 올라가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이 浮가 되니 浮하게 한다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 양기가 外浮하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이치이다. 만약 거처를 너무 시원하게 하며 음식을 너무 차게 먹고 혹 수렴하는 약을 지나치게 먹어 땀이 나오지 않게 하면 가을에 반드시 痰이 생기니 이 하나의 단서로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름에 伏陰이 안에 있으니 마땅히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진실로 옳으나 하지에 一陰이 始生하니 마땅히 微陰을 보호할 것이니 육계, 부자 등의 약을 가볍게 복용하여 그것을 사그러지게 할 것인가. 여름에 마땅히 辛熱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 아니다.

降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이 沈이니 沈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 陽氣가 潛藏하면 神氣는 마땅히 수렴시켜야 한다. 만약 안과 밖으로 煩勞하게 하여 精氣를 많이 배설시키거나 혹 升散하는 약을 먹어 氣가 耗散하면 봄에 반드시 병이 생긴다. 따라서 겨울에 陽氣를 숨겨 치밀하게 해야 하니 熱藥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동지에 一陽이 始生하니 마땅히 微陽을 보호해야 하니 어찌 가히 황련 황백 등의 약을 가볍게 먹어서 그것을 상하게 할 것인가. 겨울에 마땅히 苦寒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를 안다면 “無伐天和”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五運六氣之說은 內經에 詳言之하고 後賢疏注更詳이라 但至于今히 而按之天時 民病컨대 多不相合하니 豈古今氣

運不相同耶아 近者에 武林 徐季孺가 刻有運氣商하니 言之尤悉하고 其於間氣에 闡發極精이나 乃按之天時 民病건대 亦多不合也니 是不可解라 竊謂治病者는 得是說而存之하야 用藥時稍爲照顧라 如相火司天하고 又兼行火運이면 則用藥不可過熱하야 遵熱無犯熱之禁 이니 于寒亦然이라 如相火司天이나 而行水運이면 即用熱亦無妨이오 或行金 土運이라도 亦似可不拘라 若膠柱鼓瑟 而斤斤株守면 恐反多窒碍而致誤라 矧原有拾時從症之訓이면 則不可違症以從時也明矣라 經云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 二語는 須認明白이라 如先哲 熱無犯熱 寒無犯寒之說은 則是夏不可用熱藥이며 冬不可用寒藥이며 春不可助木이며 秋不可助金矣라 又讀 本草綱目하니 李時珍之言曰 春宜加辛溫之藥하야 以順春升之氣하고 夏宜加辛熱之藥하야 以順夏浮之氣 하며 秋冬准此라하니라 以上二說相背하니 當何適從고 獨不觀經又云乎아 升降浮沈則順之하고 寒熱溫涼 則逆之라하니 斯二言이 可爲定論矣라 春宜順春升之 氣以升之하며 秋宜順秋降之氣以降之어니와 至于夏浮 冬沉하얀 非謂必以辛熱 苦寒으로 浮之 沈之라 薄荷 香薷等은 非浮劑耶아 地黃 牛膝等은 非沉劑耶아 此 四時不可以一例論也라 所謂逆之者는 寒則熱之하고 熱則寒之하며 溫則涼之하고 涼則溫之也니 豈與升降 浮沈例論乎아 經又云 春에 省酸增甘以助脾하고 夏에 省苦增辛以助肺 云云이라 春則木王土虧 故로 欲抑木 以助土오 夏則火王金衰 故로 欲抑火以助金이니 則逆 之說을 更了然矣라 至於順之說하얀 亦概論用藥之理 宜然이라 又有當舍時從症者하니 不可泥也라 升之不已 爲浮니 浮之義는 何居오 如陽氣外浮하야 夏月 多汗은 理之常也라 若居處太涼하며 飲食過冷커나 或 過服歛藥하야 使汗不泄이면 秋必生痰하니 此其一端 으로 可類推矣라 故로 謂夏月 伏陰在內하니 不宜 飲冷이 固是나 然이나 夏至에 一陰生하니 正宜保護 微陰이니 其可輕服桂 附等藥하야 以銷之乎아 則夏令 宜辛熱之藥은 其說非也라 降之不已가 爲沉이니 沈之 義는 何居오 如陽氣潛藏하면 神氣宜斂이라 若內外煩 勞하야 精氣多泄커나 或服升散之藥하야 使氣耗散하 면 春必生疾也라 故로 謂冬月 陽藏於密하니 不宜 又服熱藥이 固是라 然이나 冬至에 一陽生하니 正宜 保護微陽이니 豈可輕服連 栢等藥하야 以傷之乎아 則

冬令宜苦寒之藥은 其說非也라 知此면 則無伐天和之 奧義를 可知矣라³³⁾

위의 내용은 黃承昊(字 履素, 號 暗齋, 秀水縣人) 의 『折肱漫錄』에 있는 글이다. 그는 운기학설을 부 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임상에서 활용할 때 舍時從 症의 說도 있으니 融通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 였다.

이어서 “必先歲氣 無伐天和”를 부연설명하면서 寒熱溫涼則逆之하여 夏不可用熱藥하며 冬不可用寒藥 하며 春不可助木하며 秋不可助金해야 한다고 하였 다.

升降浮沈則順之하여 春宜順春升之氣以升之하며 秋宜順秋降之氣以降之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름의 浮를 위해 不宜飲冷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辛 熱한 약으로 浮之해서는 안 되고 겨울의 沈을 위해 不宜服熱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苦寒한 약으로 沈 之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無伐天 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였다.

2) 繆希雍의 論五運六氣之膠

목희옹은 그가 지은 『神農本草經疏』에서 「論五運 六氣膠」라는 글을 써서 운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 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운육기설의 근원을 살펴보면 한나라, 위나라의 뒤에 생겨났다. 어찌서 인가. 장중경은 한나라 말기 사람이지만 그 책에 실려 있지 않고 화타는 삼국시 대 사람이지만 그 책에 역시 실려 있지 않다. 이보 다 앞서 편작의 책에 그 내용이 없고 이보다 뒤에 왕숙화가 이 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때문에 그것이 후세에 지어져서 치료에 무익하고 후 세의 학자들을 그르친다고 여기니 학자들은 마땅히 깊이 구별해야 한다.

내가 보건대 지금의 의사들은 학문에 근본이 없 고 유래도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오운육 기를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장차 이것으로써 병치

33) 王新華편저. 중국역대의론선. 남경. 강소과학기술판사. 1983. pp.890-892.

료하는데 배풀고자 하니 비유컨대 算法의 精微한 것을 가리켜 사물에 실지 있는 것이라고 말하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도 오운육기가 빈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해에 그 기운이 이름이 있다면 계산에 넣고 기운이 이름이 없다면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미 그 기운이 없다면 어찌 약을 쓸 수 있겠는가. 한마디 말로 끝낼 수 있을 뿐이다. “必先歲氣”라고 말한 것은 비유컨대 이해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백성들이 多濕한 병에 걸리면 약은 마땅히 창출, 백출 같은 苦濕한 종류를 써서 燥濕하고 방풍, 강활, 승마, 갈근 같은 風藥으로 도와줄 것이니 風이 능히 濕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必先歲氣”의 뜻이다. “無伐天和”라고 말한 것은 봄여름에는 마황, 계지를 쓰지 말고 가을, 겨울에는 석고, 지모, 황금, 황련, 작약을 쓰지 말 것을 이르는 것이다. 즉 春夏에 養陰하고 秋冬에 養陽하는 뜻일 따름이니 天和를 쫓아서 기르는 道인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오운육기를 알지 못하면 의서를 두루 본들 무엇을 구제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 후세사람들이 어리석어 오운육기의 所以를 알지 못하고 의서에 실린 것을 잘못 알아 그에 의지해 써서 잘못이 생긴다면 비록 의서를 두루 볼지라도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를 가리킨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소문』 속에 이 설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고 자라서 四方을 유람할 때 천하의 의사와 학사, 대부들이 어디에서든 그 뜻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때 마음에서 그윽히 의심을 품었다. 또 성리학책에 실린 것을 보니 원나라 유학자 초려 오씨(吳澄, 字幼清, 草廬는 그의 號이다)의 天地氣運 속에 또한 갖추어 실려 있었다. 나는 이에 더욱 운기는 天運氣數之法이지 醫家治病之書가 아니라는 것을 自信하게 되었다. 후에 우리 邑의 趙少宰(趙用賢, 字汝師, 明대관리로 벼슬이 吏部侍郎에 이르렀다. 少宰는 이부시랑에 대한 호칭이다) 家藏 宋版 仲景 『傷寒論』을 보니 모두 북송시대 善本으로 시종 상세히 검토했으나 결코 운기 학설이 실려 있지 않았고 彙經지법 속에도 결코 한글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상한외감을 치료하는 설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나는 일찍이 중경의 법을

따라 일체의 外邪病을 치료하였는데 메아리처럼 옹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나는 중경의 말이 아니면 만세의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雜學이 혼란스럽게 하여 후인들을 의심스럽게 하고 그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내서 후학들로 하여금 선택할 바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原夫五運六氣之說 其起於漢魏之後 乎 何者 張仲景은 漢末人也 其書不載也 華元化는 三國人也 其書亦不載也 前之則越人無其文 後之則叔和鮮其說 予是以知其爲後世所撰 而無益於治療 而有誤乎來學 學者宜深辨之 予見今之醫師는 學無原本 不明所自 侈口而談 莫不動云五運六氣 將以施之治病 譬之指算法之精微 謂事物之實有 豈不誤哉 殊不知五運六氣者는 虛位也 歲有是氣 至則算 無是氣 至則不算 既無其氣 焉得有藥 一言可竟 已矣 其云必先歲氣者는 譬夫此年忽多淫雨 民病多溼 藥宜類用 二朮苦溫 以燥之 佐以風藥 如防風 羌活 升麻 葛根之屬 風能勝溼 故也 此必先歲氣之謂也 其云毋伐天和者는 即春夏禁用麻黃 桂枝 秋冬禁用石膏 知母 芍藥 芎藭之謂 即春夏養陰 秋冬養陽之義 耳 乃所以遵養天和之道也 昔人謂不明五運六氣 檢遍方書 何濟者는 正指後人愚蒙 不明五運六氣之所以 而誤於方冊所載 依而用之 動輒成過 則雖檢遍方書 亦何益哉 予少檢素問 中載有是說 既長游於四方 見天下醫師與學士大夫 在在談說其義 於時心竊疑之 又見性理所載 元儒 草廬吳氏 於天之氣運之中 亦備載之 予益自信 其爲天運氣數之法 而非醫家治病之書也 後從敝邑 見趙少宰 家藏宋版 仲景傷寒論 皆北宋善本 始終詳檢 並未嘗載有是說 六經治法之中 亦並無一字及之 予乃諦信 予見之不謬 而斷爲非治傷寒外感之說 予嘗遵仲景法 治一切外邪爲病 靡不響應 乃信非仲景之言 則不可爲萬世法程 雜學混濫 疑誤後人 故特表而出之 俾來學知所擇 擇云 34)

34) 林春榮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

위의 글은 繆希雍의 『神農本草經疏』에 있는 내용이다. 그의 운기에 대한 관점은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운기는 한나라, 위나라 이후에 나온 것이다. 둘째 치료에 무익하고 후학들을 가르친다. 셋째 운기의 구조는 단지 虛位로서 활용할 때 규정을 따라 살펴 계산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실제 기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니 즉 “歲有是氣至則算하고 無是氣至則不算”한다. 넷째 운기는 유가의 天運氣數之法이지 醫家治病之書가 아니라는 것이다. 목희용의 주장은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 민국시대의 醫家인 謝觀은 『中國醫學源流論』 「오운육기설」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說破하고 있다.

목희용의 말은 탁월하여 미혹되지 아니하니 호걸 지사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오행에 오장을 배속한 것은 고문가와 금문가에 모두 있고 육기의 설은 좌씨전에도 보이니 어찌 모두 다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중국은 서주 이전은 본래 음양오행의 세계였고 동주 이후는 그 설이 점점 깨지다가 한나라 때 이르러 드디어 쇠퇴하여 몰락하였으며 위나라 진나라 이후에는 玄學이 크게 흥하여 그 설이 완전 쇠퇴하여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고대에 예악병형은 정치와 교화의 형체였고 음양오행은 정치와 교화의 魂神이었다. 그러나 후세의 유학자들은 예악병형은 많이 언급했지만 음양오행은 드물게 언급한 것은 어찌서인가. 인심이 변해서 항상 事物만을 앞세우고 음양오행설이 후세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가라고 해서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정중경의 『傷寒』은 스스로 『오행대론』을 참고해서 지었다고 했고 『素問』은 위진 이후의 의가들이 또한 모두 외우고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오운육기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명당도, 침구법, 본초경, 맥결 등은 유가에 예악병형이 있는 것과 같고 오운육기론은 유가에 음양오행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해부학이 이미 끊어졌고 형이하의 학문이 날로 없어져가는 이때에 하나의 학설을 구해 一切를 包括하고자 할 진데 오운육기설을 버린다면 진실로 예측될 곳이 없다(其言卓然不惑하니 可謂豪杰之士라 然以五行配五藏은 今古文家皆有之하고 六氣之說은

亦明見左氏하니 安得盡指爲虛誣리오 蓋中國은 自西周以前은 本爲陰陽五行之世界오 東周以後는 其說漸破라가 至漢遂成強弩之末하고 魏晉而降에 玄學大興하야 而其說이 摧陷廓清殆盡矣라 夫在古代에 禮樂兵刑은 政教之形質也오 陰陽五行은 政教之魂神也라 然이나 後世儒者는 多言禮樂兵刑 而罕談陰陽五行者는 何也오 以人心變動하야 恒先乎事物하야 而陰陽五行之說이 不足以範圍後世之人心故也라 醫家則何以異此리오 張仲景之『傷寒』은 自言撰用五行大論하고 而『素問』一書는 魏晉後醫家가 亦皆通習勿替라 然이나 卒不言五運六氣之說者는 明堂之圖, 鍼灸之法, 本草之經, 脈學之訣은 猶儒家之有禮樂兵刑이오 五運六氣之論은 猶儒家之有陰陽五行也라 然이나 當解剖之學이 既已廢絶하고 形下之學이 又日湮晦之時에 而欲求一說하야 使足以包括一切인텐 則舍五運六氣之論이면 固莫屬矣리라)³⁵⁾

사관은 음양오행설과 오운육기론은 한의학의 정신으로서 有形의 세계를 포괄하고 관통할 수 있는 중요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V. 명대에 간행된 운기서적

명대에 간행된 운기관련서적을 모아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된 내용은 嚴世云이 지은 『中國醫籍通考』를 참고하였고 빠진 것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Table 1. Five Circuits And Six Qi Books published in the Ming Dynasty(명대에 간행된 운기서적)

서명	저자	卷數	存佚	비고
運氣圖說	呂復		佚	『九靈山房集·滄洲翁傳』에 보인다.
(內經)運氣類注	樓英	4卷	存	『醫學綱目』속에 있음
運氣占候	樓英		存	『醫學綱目』속에 있음

35)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복주, 복건과학기술출판사. 2003. pp.36-37.

普濟方運氣	朱橚			普濟方속에 있음
素問運氣圖括 定局立成	熊宗立	1卷	存	熊氏が刻한 『황제내경 소문 영추』에 있다.
(重編)傷寒必 用運氣全書	熊宗立	5卷	存	명나라 초기의刻本이 있다.
黃帝內經素問 靈樞運氣音釋 補遺	熊宗立	1卷	存	『황제내경소문영추』에 있다.
運氣易覽	汪機	3卷	存	
六氣標本論	王宦			
運氣發揮	呂夔		佚	『江陰縣志』에 보임
運氣全書	佚名		佚	『古今醫統大全』에 보임
運氣總論	李梴		存	『醫學入門』속에 있음
運氣略	張三錫		存	『醫學六要』속에 있음
運氣指明	王三樂	2卷	存	抄本
運氣穀	張昶		存	명 만력47년(1619년) 간행본이 있다.
運氣總論	佚名	1卷	佚	澹生堂書目에 보임
運氣玄樞	佚名		佚	絳雲樓書目에 보임
運氣占候補滙	邵弁		佚	古今圖書集成에 보임
運氣化機	石震		佚	武進縣志에 보임
運氣說	錢寶		佚	鎮江府志에 보임
運氣考	李中梓		佚	
五運六氣詳解	董玠		存	『十竹齋袖珍本醫書』에 보임
運氣定論	董說	1卷	佚	
運氣商	徐亦禪	2卷	存	
類經圖翼運氣	張介賓	2卷	存	
運氣	聶尙恒(久吾)	1卷	存	『醫學彙函』속에 있음

V. 결론

明대의 운기학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명대는 종합의서속에 운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우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普濟方』속의 「運氣」, 『醫學入門』속의 「運氣總論」, 『醫學六要』속의 「運氣略」 등이 있다.
2. 명대에는 전대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운기이론을 집대성한 책들이 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汪機의 『運氣易覽』 張介賓의 『類經圖翼·運氣』 등이 있다.
3. 명대에는 운기학설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많은 운기전문서들이 편찬 되었는데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徐亦禪의 『運氣商』, 王宦의 『六氣標本論』 등이 있다.
4. 汪機는 『運氣易覽』에서 운기이론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의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正化, 邪化, 抑鬱, 鬱發, 淫勝, 亢害承制 등을 중시하였고 운기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배하는 大運氣論을 주장하였다.
5. 李梴은 「運氣總論」에서 운기가 天地의 변화를 지배하여 장부, 경락, 脈病, 藥治에 직접 관련된다 고 주장하였고 전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心得한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天時勝하면 捨病從時하고 人病勝이면 捨時從病하는 것 등이다.
6. 徐亦禪는 『運氣商』을 지어 氣化의 이치를 闡發하고 病機와 治法을 드러내었으며 變通하여 立方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運氣病機說」을 지어 특별히 淫勝鬱復의 病機를 강조하였다.
7. 張介賓은 『類經』 「運氣類」의 주석을 통해 『내경』의 운기를 연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또 『類經圖翼·運氣』를 저술하여 태극, 음양, 오행, 氣數 등의 이론을 闡發하였고 主運의 太過不及과 交司日時, 남북정에 대한 指掌圖 등은 이전의 운기서적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法古創新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8. 명대에 운기가 보편화되면서 오운육기의 이론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데 黃承昊의 「治病不可拘執于五行六氣」가 이를 대표하고 또 운기를 완전 부

정하는 의가도 출현하였는데 繆希雍의 ‘論五運六氣之繆’가 이를 대표한다.

8. Zhang JB, LeiJingTuYi. Seoul, Seongbosa. 1999.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성보사. 1982.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Gao EX Zhubian, Wangshishan Yixue Quanshu. Beiji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1999.
高爾鑫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Li C original work. An BG et al. trans., Guoyi Bianzhu YiXueRuMen. Seoul. Sungmunsa. 1978.
李梴原著. 安秉國. 蔡仁植. 李炳幸譯. 國譯編珠醫學入門. 서울. 승문사. 1978.
3. Lin CR. MiuXiYongYiXueQuanShu. Beiji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1999.
林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 Ren YQ. YunQiXueShuo. Shanghai. Shanghai Kexuejishu Chubanshe. 1982.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5. Xie G. Zhongguo Yixue Yuanliulun. Fuzhou. Fujian Kexuejishu Chubanshe. 2003.
謝觀. 中國醫學源流論.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3.
6. Xu YZ. YunQiShang. Beijing. Zhongyi Guji Chubanshe. 2009.
徐亦釋. 運氣商. 北京. 中醫古蹟出版社. 2009.
7. Wang XH. Zhongguo Lidai Yilunxuan. Nanjing. Jiangsu Keji Chubanshe. 1983.
王新華편저. 中國歷代醫論選. 南京. 江蘇科技出版社. 1983.